



전남 서남권 발전 견인 'SOC 新프로젝트' 나왔다

2조7천억 투입 광주-영암·목포 간 '아우토반' 구축
목포구도심-남악·오룡신도시 '전남형 트램'도 도입
순지사 "목포·무안·영암 경제·관광 활성화 마중물"

전남 서남권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이끌 새로운 SOC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아우토반' 등 새로운 개념의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버스를 대체할 새로운 대중교통 '트램' 도입이 핵심 골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31일 오전 도청 브리핑에서 박홍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김성훈 무안부군수와 함께 '전남 서남권 SOC 新프로젝트'를 공동발표했다.

우선 제20대 대선 지역공약에 반영된 광주-영암 아우토반을 조속히 건설하고 대불산단대교로 목포까지 연결해 아우토반 효과를 서남권 경제·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광주에서 영암 F1경기장까지 47km 구간을 아우토반으로 연결하면 나머지 구간은 기존 도로(16.3km)를 통해 자연스럽게 목포까지 연결된다. 여기에 대불산단 입주 기업과 근로자,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영암-목포를 잇는 25km 구간을 해상교량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아우토반이 영암을 거쳐 해상교량으로 목포까지 이어지면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젊은이들이 마음껏 속도를 즐기고,

이색적인 관광지를 찾는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F1경기장 활성화와 함께 주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물류비 절감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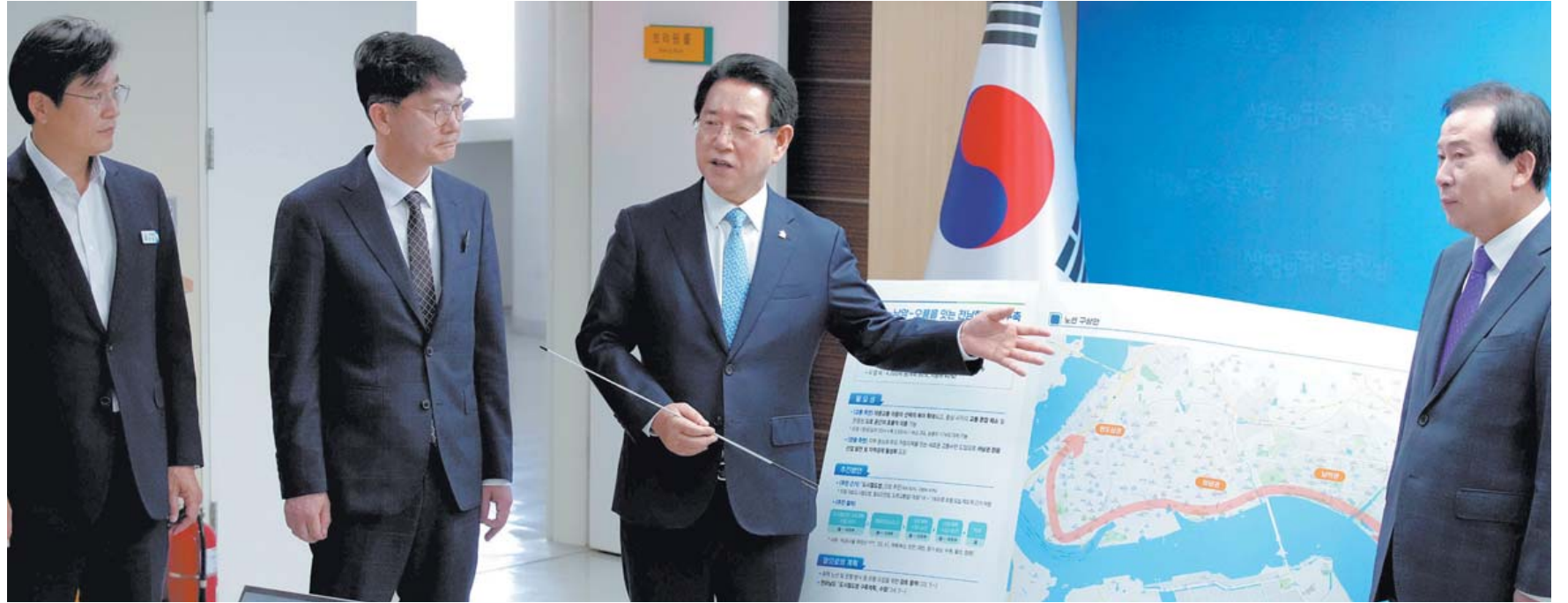
사업비는 광주-영암 아우토반 2조6천억원, 대불산단대교 1천900억원 등 총 2조7천900억원 규모다.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타당조사 용역을 추진해 국가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목포 구도심에서 하당, 남악·오룡 신도시를 잇는 '전남형 트램' 도입도 추진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은 편리성과 관광 기능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중심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와 한정된 도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차세대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889년 서울에서 처음 운행했으나 버스와 승용차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1988년 멈췄다. 그러나 최근 환경



서남권 '新프로젝트' 발표 김영록 전남지사가 3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대불산단대교 연결, 무안-남악-오룡을 잇는 트램 도입 등 전남 서남권 SOC 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장에는 박홍률 목포시장과 우승희 영암군수, 김성훈 무안 부군수가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과 대중교통 분담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교통 수단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운영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서울 위례선이 지난 4월 착공했다. 부산, 대전, 인천, 울산, 성남, 수원, 창원 등 전국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퉈 트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도 '트램 3법'으로 불리는 도시철도법, 철도안정법, 도로교통법이 모두 개정(2016-2018

년)돼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 상태다.

트램이 도입되면 지역 명소와 주요 거점 지역을 잇는 새 교통수단으로 전남 서남권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트램 사업비는 4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최적의 노선과 운행 방식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전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발전의 큰 축인 서남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서남권 新활력 프로젝트'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도로, 철도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은 미래 지향적 관점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와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은 서남권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광주-영암

·목포 아우토반, 대불산단대교 연결'과 '전남형 트램'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광주-전남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시의적절한 정책 사업"이라며 "전남도의 강한 의지가 용역 설계비 등 예산 확보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재정기자

광주지역 아동병원 '오픈런' 해소 여부 주목

市,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공모...연중 자정까지 진료

광주시가 '공공 심야 어린이 안심병원' 운영 기관을 공개 모집키로 해 소아 청소년병원 진료 대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6월 15일 하루 동안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평일과 휴일 24시까지 소아 청소년 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운영 조

건을 충족한 병원이어야 한다.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에 선정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심야 병원을 운영하고 인건비와 시설자금, 홍보비 등 연간 최대 15억원을 지원받는다. 야간·휴일에도 2명 이상 전문의가 진료해야 하며 1년에 3일 이내로만 휴진할 수 있다.

광주시는 우선 1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공모 신청과 운영 상황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은 지난달 광주시가 발표한 민선 8기 '손에 잡히는 변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이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전국 36곳에서 운영 중이지만 광주에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증 소아 환자가 야간·휴일에는 전문의가 없는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으로 야간·휴일 외래 진료를 제공해 경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증

환자 분산을 통해 응급실 과밀화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어린이들이 심야나 휴일에 아파도 전문의가 없는 응급실을 가야 하는 실정이 안타깝다"며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을 통해 어린이는 물론, 부모들의 근심과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Today	
새신실종, 정신 못치리는 민주당	4편
임대아파트 계약기간 '논란'	6편
U-20, 에코도르 잡고 8강간다	16편

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3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자율과 권고를 기본으로 한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분야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대응키로 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의원·약국에서 시행하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마스

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광주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5곳)와 코로나19 지정병상(22개)은 계속 운영하고, 진단·치료·치양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339곳)과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 등 의료대응체계도 현재를 유지한다.

전남도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 있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전남지역 감염 취약시설 등에 마스크 2만9천장 과 진단키트 2만9천개를 배부하고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와 홍보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김재정·박선강기자

무안국제공항이 살아납니다! 서남권이 발전합니다!

국제공항이 살아나면 관광객 OK! 기업투자 OK!!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군 공항이 만나 진짜 명실공히 광주·전남의 관문공항으로!

- 무안국제공항은 모든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 광주 국내선을 이전해야 국제선도 활성화됩니다.
- 군 공항까지 통합하면 서남권이 더 크게 발전합니다.
- 군 공항 소음 대책 확실히 마련합니다.
- 주민설명회에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